

여수시,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유치한다

총 1050만명 목표...시, 9개반 편성 종합대책 추진

'365힐링관광 세계 4대 미항 여수'로 슬로건 정해

여수시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을 포함해 105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관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슬로건은 '365 힐링 관광 세계 4대 미항 여수'로 정했다.

특히 지난해 6만8000명에 그쳤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10만여명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관광종합상황실 운영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22일 "적극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와 팜투어, 양해각서(MOU) 체결 등 모두 58차례에 걸친 다양한 관광 유치 활동을 통해 관광객 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00만 관광객 유치 과정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여수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그 산하에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상황반, 교통대책반, 금모도 대책반, 돌산공원·오동도 대책반, 박람회장 대책반 등 9개반을 편성해 본부 체제로 구축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 운행과 도심 순환 2층 투어버스 운영 등 주요 관광지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호경 부시장은 "박람회 사후 활용이 지지부진하면서 불투명했던 1000만 관광객 달성이 30만시민과

2000여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말 기적같이 이뤄졌다"며 "정원박람회 특수가 사라진 올해 여건은 더 어렵지만 지속가능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유지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1041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광양 신덕지구 진입로 사업

390억 투입 내달부터 추진

광양시가 광양읍 신덕지구(구역사·신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신덕지구 진입도로는 구역사와 신역사를 연결하는 도로로,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390억원을 투입된다. 연장은 1.26km, 도로 폭은 30m다.

시는 지난 2012년 5월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보상비 128억 원을 확보, 편입토지 보상에 나서 현재 85%의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광양역사 이전 및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료로 철도 수송과 육로를 연결하는 복합교통망 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신덕지구 진입도로가 개설이 주민 편의와 기업 물류 불관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고흥군-中 동흥시 청소년 교류 중국 동흥시 학생 10명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흥지역 학생 10명의 집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활동을 가졌다. 흥군과 동흥시는 지난 2012년 상호 우호협력 증진과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우호교류 협의를 체결한 뒤 1년에 두 차례 양 지역을 교차 방문하고 있다.

순천시 '시정 사료 담당' 부서 신설

순천시는 시정관련 사료 및 가치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정사료담당'을 신설했다.

그동안 시에서 생산된 문서는 보존기간별로 문서를 폐기함에 따라

재산권 소재 시 폐소한 경우와 행정자료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지난 1995년 순천시의 승주

군이 통합하면서 지역의 소중한 향토자원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지금까지 문서, 도면, 대장, 사진, 전자매체 등을 대상으로만 보존해 왔다. 그러나 향후 보존기관 경과문서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 기관수상 상장·상징물·홍보물·행정

물품 등의 행정 관련 물품, 자연환경·역사문화자원·사건사고·재난재해 등의 분야와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사료까지 보존 자료의 범위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들 자료를 한 군데로 모아 보존·관리해 교육·체험의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고창군,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

올해 108개동에 108억원 투입

24일부터 희망자 접수

고창군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2014년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2일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8동의 농어촌 주택을 개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민에게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해에는 신·개축 시 5000만원(연리 3%)로 융자 지원했으나 올해는 신·개축 시 6000만원 융자(연리 2.7%)로 규모는 늘리고 이

자는 하향조정했다.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또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건축물 철거 시 지원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4억5700만 원을 확보해 183동을 철거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24일까지 접수해 실태조사 실시 후 다음달 초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전북

순창 힐링산업 거점사업 총력

군, 좋은 물·건강장수 여건 활용 신개념 전략마련 아토피·당뇨 등 만성질환 치유·예방 프로젝트 추진

순창군이 지역의 좋은 물과 문화, 관광, 식품 등 다양한 자원, 건강장수 여건, 전문기술을 결합하는 신개념의 힐링산업 순창거점사업 추진을 기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치유·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22일 "양·한방 융합형 힐링 거점 조성 사업의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

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용역내용은 ICT(정보통신기술)와 양·한방치료 시스템 구축, 전문병원과 연계한 치유와 체험시설을 완비한 힐링센터 구축, 인계면 건강장수연구소와 지역 대표 관광지인 팔덕면 강천산 주변을 연결하는 것이다. 또 다양한 치유 테마의 길 조성으로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 ICT를 활용한 안전(GPS) 및 손목형 의료시스템이 적용되는 ICT 마 을 조성사업 등을 팔덕지 주변에 계획하고 있다.

군은 올해 힐링산업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분야별 사업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군은 그동안 순창에 맞는 힐링산업 추진을 위해 원광대, 한국원자력연구원, 건양대학교 등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순창은천수"가 한국물학회가 추천하는 '한국의 좋은 물'로 2011년과 2012년 2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면서 온천수의 효용을 인정받았으며, 지역 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순창은천수'의 상표출원을 마쳤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설 연휴, 업체 대부분 4일 쉰다

10개사 중 6개사 상여금 지급

정읍상의 114개사 조사

정읍·김제·고창·부안지역 업체들은 이번 설 연휴에 대부분 4일을 쉬고 절반 이상이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상공회의소는 22일 "설 연휴(1.30 ~ 2.2)를 앞두고 관찰지역에 있는 11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 연휴 공장가동 및 상여금 지급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설 연휴 휴무기간은 4일 휴무가 75%, 3일 휴무가 25%로, 평균 연휴 일수는 지난

해(3일)보다 하루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기간 동안 공장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체(90%)가 가동하지 않는 반면 10%의 업체는 주문량 납기일 준수, 또는 설비유지를 위하여 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상여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급 업체가 64%, 미지급 업체가 27%였다.

지급수준은 기본급 대비 50%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100% 지급은 36%, 기타 20~40% 지급은 12% 순으로 나타났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귀농·귀촌 고창사랑 건강교실'

고창군보건소는 '행복그린 건강고창 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귀농·귀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뉴타운 커뮤니티센터에서 매주 화·목요일 '귀농·귀촌 고창사랑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건강교실은 오는 3월27일까지 계속된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kwangju.co.kr

화재로 보금자리 잃은 주민에

용기와 희망준 훈훈한 이웃들

보성 회천면사무소 직원 등 40여명 자원봉사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웃을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돕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회천면 서동마을 서모(49)씨의 집에서 불이 난 것은 지난해 12월17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운 겨울에 보금자리를 잃은 서씨 가족은 한 달이 지나도록 복구는 고사하고 잔해물도 치우지 못한 채 시름에 잠겨 있었다.

이에 새마을지도자회(회장 강성택)와 마을 주민, 회천면사무소 공무원 등 40여명이 지난 16일 화재주택 내부에서 따다 남은 가구, 가전제품, 옷 등 화재 잔해를 꺼내는 봉사활동을 했다.

또 피해가 적은 황토벽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의를 검토하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회천면 서동마을 서모(49)씨의 집에서 불이 난 것은 지난해 12월17일.

서씨는 "갑작스런 화재 피해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웃주민들이 발 벗고 도와줘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됐다"며 제대로 말을 잊지 못했다.

강성택 회장은 "날씨가 춥고 모두가 바쁜 와중에도 이웃을 돕기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새 얼굴

"지역민 최전방 인권지킴이 노력"

하 태 옥 여수경찰서장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서는 단순한 법 집행기관을 넘어 국민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취임한 하태옥 여수경찰서장은 4대4 범죄 척결과 함께 시민 생계 침해형 범죄를 뿌리 뽑고 지역민을 위한 최전방 인권 지킴이가 되자고 강조했다. 하 서장은 또 "아직도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곡성 출신으로 지난 1984년 간부후보생 32기로 경찰에 입문한 하 서장은 폭포서장과 광주경찰청 보안과장을 역임했으며, 슬하에 부인과 1남1녀를 두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단신

정읍 차상위계층 복지 향상 5억90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올해 차상위계층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세 환원 지원금 1억1900만원을 포함해 5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22일 "2013년도부터 주민세 환원사업 예산이 복지분야에 지원됨으로써 차상위계층에게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 주거임대료 사업 등 모두 5개 사업을 추진한다. 7900만원을 들여 60세대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펼치고, 220세대에 대해서는 주거임대료도 지원된다. 190세대에 건강보험료를, 345세대에 대해서는 정부 양곡도 지원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 전시·판매

전주시는 설을 맞아 22일 전주 시청 로비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 전시·판매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절 주관으로 17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설맞이 기획 선물세트 6품목 12종과 떡, 빵, 새송이버섯, 두부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다양한 생산

품을 1만~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전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절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전북도청은 물론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홍보 및 판매하고 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남원농기센터, 이동식 양파 저장시설 개발기로

남원지역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부상하고 있는 양파 저장을 위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고온에도 부패되지 않고 품질이 하락되지 않는 이동식 저장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22일 "올해 양

파 저장성 향상을 위한 이동식 저장시설 사업을 실시해 양파 부패와 품질 하락으로 인해 농업인의 손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지역 농업인들이 벼농사 후 유휴 토양을 이용해 양파를 재배하면서 현재 재배면적이 100ha에 이르고 있다. /남원=백성진기자 bs8787@

순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큰 호응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가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와 국내외 가격,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조직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품목별로 영농기술향상과 협동경영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인 학습조직체로, 블루베리, 오미자, 농촌체험관광연구회 등 19개에 모두 1217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영농기술교육 22회, 현장교육 25회 등 주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습득에 앞장서 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